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1-46  
<https://doi.org/10.29212/mh.2022..12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6·25전쟁 낙동강 방어 시 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의 역습 작전에 관한 고찰

강지현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 목 차
1. 서론
  2. 작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
  3. 킨 특수임무부대의 계획수립과 작전준비 과정 분석
  4. 작전실시 과정 분석
  5.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1950년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 중,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되었던 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의 역습 작전을 분석한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6·25전쟁 초기 계속된 지연 작전에서 최초의 사단급 역습 작전이라는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23,000여 명에 이르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었음에도

약 7,500명의 북한군을 상대로 한 역습 작전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작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고 있으며, 작전의 결과로 얻은 일부의 성과에만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교훈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작전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계획수립, 작전준비, 그리고 작전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6·25전쟁 당시 미 제25보병사단의 정기 작전 보고서와 전투 일지, 그리고 지휘보고서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었으나 치열한 전선 상황으로 인해 상대할 적과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로 각 부대를 편성했으며, 예행연습과 사전 정찰 등 작전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작전을 진행할 때에는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해서 후방지역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격 부대의 진출이 지연되어 공격 기세가 유지되지 않았고, 일부 지휘관의 지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들로 인해 결국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주제어** : 킨 특수임무부대, 역습 작전, 미 제25보병사단,  
미 제1해병여단, 미 제5연대전투단

(원고투고일 : 2022. 7. 6, 심사수정일 : 2022. 11. 8, 게재확정일 : 2022. 11. 25.)

## 1. 서 론

6·25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 형성 시기에 북한군은 광복절인 1950년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을 목표로 하여 8월 공세를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이중 양익 포위를 하여 대구를 점령한 후, 대구에서의 정면 공격과 마산과 포항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익 포위를 계획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은 낙동강 전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마산 지역은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83기계화연대를 배속받아 증강된 북한군 6사단이 공격을 담당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Walton Walker) 중장은 북한군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반격을 실시하기 위해 1950년 8월 1일 미 제25보병사단을 마산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 8군 사령관은 북한군 예비대가 마산 지역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대구 지역에 집중되는 북한군의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주를 목표로 한 반격 작전을 결심했다.<sup>1)</sup> 이를 위해 미 제25사단에 미 제5연대전투단, 미 제1임시해병여단, 미 제87전차중대, 미 제89중전차(M4A3)대대, 미 제1해병전차(M26 Pershing)대대, 한국군(민부대<sup>2)</sup>, 해병대<sup>3)</sup>,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 275-278.

2) 당시 전시특명검열관 보좌관이었던 민기식(閔機植) 대령의 부대이다. 1950년 8월 20일 민부대와 독립유격 제 1·2대대를 기간으로 제7사단이 재창설된 것으로 보아 민부대는 대대급 규모로 추정된다. 민기식 대령은 1950년 9월 10일 대구방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 59-61.

3) 국군 해병대 김성은(金聖恩) 중령의 부대이다. 1950년 8월 1일 서남지구 전투사령관 이응준(李應俊) 소장의 명령에 따라 봉암리 일대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8월 6일 진동리의 미 제27연대에 배속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경찰 중대<sup>4)</sup>) 등을 배속하여 미 제25보병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의 이름을 딴 킨 특수임무부대<sup>5)</sup>(Task Force Kean)를 편성하였다.<sup>6)</sup> 1950년 8월 7일 반격을 개시한 킨 특수임무부대는 미 8군 사령관 명에 따라 역습 작전<sup>7)</sup>을 중지한 1950년 8월 13일까지 북한군 제6사단과 7일 동안 전투를 전개했다.

작전 결과 북한군 제6사단은 병력 4,000~5,000명, 전차 13대의 손실을 입어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sup>8)</sup> 아군은 사천과 진주 점령에 실패하고, 북한군의 예비대를 마산 지역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작전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

---

pp. 287-288.

- 4) 2명의 장교와 123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한국군 제3임시보안경찰중대이다. 미 제8군의 명령에 따라 사단에 배속되었고 미 제25사단 헌병 중대로 배속되었다. 이들은 필수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고, 주 보급로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p. 18.
- 5) 특수임무부대(Task Force)는 특정 임무 또는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단일 지휘관 하에 잠정적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처, 2021), p. 356.
-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 7)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을 파쇄 공격(Spoiling Attack), 역공격(Counterblow), 반격(Counter-Offensive) 혹은 공격(Attack)이라고 하는 등 작전을 정의하는 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작전의 목표를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목표는 상실한 아군 영토인 진주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미 제25사단 정기 작전 보고서(Periodic Operation Reports)에서도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을 공격(attack)과 역습(counter-attack)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군 교범 중 미 작전 용어집(operational terms)과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나온 역습의 정의를 살펴보았을 때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역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습 작전은 공격 작전의 한 형태이므로 공격 작전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을 역습 작전이라고 명시한다.
- 8) Ibid., p. 299.

만 이 작전을 통해 마산 지역의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미군은 공격 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즉,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 작전은 6·25전쟁 초기 계속된 지연 작전에서 최초의 사단급 역습 작전이라는 큰 의의가 있었다.<sup>9)</sup>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킨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 제6사단 병력 약 4,000명을 격멸하고, 작전의 결과 미군이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는 20,000여 명의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었음에도 작전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교훈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간사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에 대한 배경, 편성과 기동계획, 전투 경과를 다루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없다. 예를 들어 부대 편성에 대해서도 미 제25사단에 미 제5연대전투단, 미 제1해병여단, 미 제89중전차(M4A3)대대, 미 해병 제1전차대대를 배속하여 편성했다고 기본적인 편성만 기록되어 있으며 부대별로 어떤 부대를 배속받았는지, 지휘 및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sup>10)</sup> 온창일의 『한민족 전쟁사』는 국방부 공간사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편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일자별 작전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다루고 있고, 부대별 구체적인 실시사항과 예하 부대에 하달한 명령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sup>11)</sup> 맥엘빈(Kyle D. McElveen)의 “1950년 6월

9)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p. 73.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11)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과주: 지문당, 2014), p. 679.

부터 10월까지의 미 제25사단의 계획적인 성공(Blueprinting Success: The Tropic Lightning in Korea, June to October) 1950”에서는 킨 특수임무부대가 역습 작전을 통해 북한군 관측에 쉬운 진주 동쪽의 고지를 점령하여 미 제8군에게 유리한 작전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역습 작전의 결과가 미 제8군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다.<sup>12)</sup>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역습 작전을 위해 편성된 부대는 어떤 부대인지만 제시되었을 뿐, 부대를 편성할 때 어떤 요소가 고려되었고 이러한 부대 편성이 작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순한 작전 경과와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부대가 조치한 사항들이 작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작전의 결과로 얻은 일부의 성과에만 주목하고 있고, 작전 목적 달성에 실패한 작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문헌 분석을 사용한다. 문헌은 ‘미 제25보병사단 정기 작전 보고서(Periodic Operation Reports)’, ‘미 제25보병사단 전쟁 일지(War Diary)’, ‘미 제25보병사단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 『미 보병연대 교범(FM 7-40: Infantry Regiment)』, 『미 보병사단 교범(FM 7-100: Infantry Division)』 등이다. 미 25사단 지휘보고서를 통해 킨 특수임무부대의 부대 편성에 대해 이해한다. 미 25사단 정기 작전 보고서와 예하 부대별 전투 일지를 통해 작전 준비와 작전 실시 과정

12) MAJ Kyle D. McElveen, “Blueprinting Success: The Tropic Lightning in Korea, June to October 1950”,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May 2019), pp. 37-38.

이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당시 미 보병연대, 보병사단 교범을 통해 부대 편성 시 고려 요소들과 작전 수행이 교리적으로 타당했는지도 검토해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시작된 1950년 8월 7일부터 미 8군 명령에 따라 역습 작전이 종료된 13일까지이다.

본 연구는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교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킨 특수임무부대가 실시한 역습 작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의 교훈에 대해 계획 수립 과정, 작전 준비 과정, 그리고 작전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2.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배경과 전개 과정

### 가. 작전 배경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군 증원부대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인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결정하였다.<sup>13)</sup> 그중에서도 낙동강 서부 및 남부 지역은 미 제8군의 직접 통제를 받는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이 각각 창녕-영산, 마산 지역을 담당했다. 미 제25사단의 작전 책임 지역인 마산은 육로·철로·해로 등 교통이 편리하였다. 철도는 진주와 삼랑진을 연결하는 진주선과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지선(支線)이 있었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3.

다. 육로로는 진주에서 마산에 이르는 철도 연변의 도로와 사천(泗川)-고성(固城)-진동(鎭東)을 거쳐 마산에 이르는 우회도로가 있었다. 또 마산에서 부산에 이르는 도로는 창원-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와 진해-부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남해안의 교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부산 서쪽의 관문으로서 피아(彼我)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sup>14)</sup>

북한 지도부는 8월 15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부산을 점령한 뒤 서울에서 8·15광복 제5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남반부 무력 해방’의 축하 행사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8월 공세를 통해 대구를 점령하여 부산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북한은 8월 공세 때 13개 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하였으며, 주공을 왜관 일대-대구-부산 축선에 두고 전 전선에서 한미 연합군의 방어 진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sup>15)</sup> 미 제25사단과 대치한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31일 18:10분에 진주를 점령하였다. 이후 미 제8군의 남측방을 돌파하여 부산을 신속히 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산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였다. 8월 초 북한군 제6사단의 병력은 5,000명이었으나, 부산 점령을 위하여 제83모터사이클연대와 T-34전차 25대, 포 36문으로 증강되고, 병력도 7,500명으로 충원되었다.<sup>16)</sup>

워커 장군은 낙동강선 방어작전에 임하면서 ‘역습만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는 미 제8군이 낙동강선으로 철수할 때에도 “역습이야말로 방어를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군이 돌파한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습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전투방식을 구사하였다.<sup>17)</sup> 이

14) Ibid., pp. 238-239.

15) Ibid., pp. 37-43.

16) Ibid., p. 274.

러한 상황에서 미 제8군은 7월 31일 포로 심문과 무전 감청을 통해 북한군 제6사단이 마산을 거쳐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낙동강 서남 방면으로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군의 8월 공세로 인해 대구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8군은 상주 남쪽에서 방어 중인 미 제25사단을 마산 방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명령을 8월 1일 14시에 하달하였다.<sup>18)</sup> 또한, 미 제25사단은 8월 2일 미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받았고, 8월 3일에는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1해병여단도 미 제25사단에 합류했다. 미 제25사단은 14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도보, 자동차,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했고 8월 3일 야간에 마산에 도착했다. 미 제8군사령관이 강력한 1개 연대전투단과 군 예비인 해병여단을 마산 지역에 투입한 것은 그만큼 마산 일대의 전황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역습을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자 했던 미 8군 사령관은 북한군의 주력이 집중되는 대구 정면의 일부 북한군을 남쪽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여 대구 정면의 북한군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을 결심했다. 이에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2가지 방안을 수립하였고, 그중에 병력과 군수 지원 능력을 고려하여 8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킨 특수임무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진주까지 진출하는 방책이 선정되었다.<sup>19)</sup>

킨 특수임무부대 편성은 8월 초 미 제8군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8월 6일부로 미 제25사단에 미 제5연대전투단과 미 제1해병여단<sup>20)</sup>, 미 제89중전차(M4A3)대대가 배속되었다.<sup>21)</sup> 기존

17) Ibid., pp. 76-79.

18) Ibid., p. 275.

1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p. 266-267.

에 마산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 제29보병연대 1대대는 미 제35연대로, 미 제29보병연대 3대대는 미 제27연대로 배속되어<sup>22)</sup> 미 제35연대와 미 제27연대는 3개 대대를 갖추게 되었다. 8월 7일 미 제27연대는 미 제8군의 예비대로 전환되었다. 결론적으로 킨 특수임무부대는 3개의 대대로 완편된 4개의 연대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수는 약 23,080명이었다. 이 중에 킨 특수임무부대 구성을 위해 배속된 병력수는 무려 11,026명에 달했다.<sup>23)</sup>

---

20)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p.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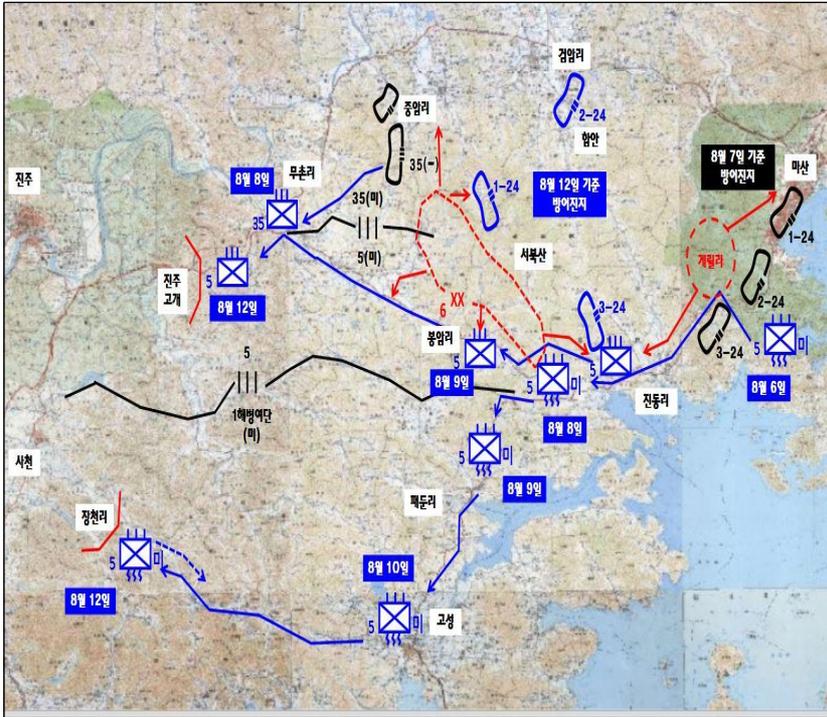
21)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k. 9, Aug. 1950 : War Diaries-Unit Rpts. Aug. 1950,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82, p. 88.

2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Historical Report; Narrative Report',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49, p. 16.

23) Roy E. Appleman (1992), p. 267.

## 나. 작전 전개 과정

<그림 1>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8월 7일~8월 13일)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3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계획은 현 배치선에서 3개 도로로 진주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북쪽에서는 미 제35연대가 가장 양호한 남해안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중암리에서 무촌리로, 미 제27연대와 교대한 미 제5연대가 진동리-봉암리-무촌리로 진출한 후 협동으로 진주 고개를 공격하며, 미 제1해병여단(24)이 고성-

사천 간 도로를 따라 진주 남동쪽을 공격하고, 미 제24연대가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적을 소탕하고 함안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sup>25)</sup>

8월 7일 6시 30분에 킨 특수임무부대는 공격을 개시했다. 북쪽으로 공격을 진행한 미 제35연대는 8월 8일 최초 목표였던 무촌리 일대를 확보했고, 8월 11일에는 미 제5연대전투단 3대대와 함께 진주 고개를 공격하여 해당 지역을 확보하였다. 중앙으로 공격을 진행한 미 제5연대전투단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동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진출이 지연되었지만, 8월 10일에 봉암리에 도착하였다. 봉암리에 도착한 미 제5연대전투단은 10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보았고, 미 제5연대장의 잘못된 지휘로 인해 봉암리 탈출이 지연되다가 8월 12일 아침이 되어서야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겨우 봉암리를 탈출할 수 있었다.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5연대전투단과 같이 진동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진출이 지연되었으나 이를 격퇴하고 8월 9일 고성 일대로 공격을 진행했다. 8월 11일 미 제1해병여단은 고성 일대에 도착했고, 강력한 함재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8월 12일에는 사천 동남쪽 신촌리 일대에 도달하였다.<sup>26)</sup>

8월 11일 미 제8군은 대구 일대에 북한군의 공격이 강화되고, 국군 제3사단이 동해안에서 포위되는 등 전 전선에 걸쳐 상황이 악화되자 예비대를 확보하여 전선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미 제8군사령관은 킨 특수임무부대의 공격 작전을 중지하고, 예

24) 작전명령 제8호에는 미 제1해병여단에게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고성-사천 일대로 기동한 병력은 미 제1해병여단 예하의 미 제5해병연대이기 때문에 <그림 1>에서는 미 제5해병연대로 부대 명칭을 표기하였다.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5해병연대 외에도 다른 전투, 지원 부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26) Ibid., pp. 291-299.

비대 확보를 위해 미 제25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진주 고개와 사천선에 신속히 진출해 이곳을 확보하라. 그리고 민 부대와 김성은 부대는 배속 해제하여 한국군에 복귀시키고, 미 제1해병여단과 미 제5연대전투단도 배속을 해제한다.”<sup>27)</sup>

8월 13일 자정 킨 특수임무부대의 철수 명령에 따라 예하 연대는 서북산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배속 해제된 미 제5연대전투단은 마산으로 철수하였고, 미 해병여단은 낙동강 돌출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1해병여단이 이동을 완료하자 8월 16일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해체되었다.<sup>28)</sup> 킨 특수임무부대는 7일간의 역습 작전으로 진주를 탈환하고 대구 정면의 적을 유인한다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였다.<sup>29)</sup>

### 3. 계획수립과 작전준비 과정 분석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군이 차후에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준다. 따라서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을 당시 미 교범에 명시된 특수임무부대의 목적과 작전수행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전수행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특수임무부대는 특정한 작전이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단

27) Ibid., p. 296.

28) Ibid., p. 298.

29) Ibid., pp. 298-299.

일 지휘관의 지휘하에 일시적으로 편성된 부대를 의미한다.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성공은 어떤 부대가 편성되는지, 그 부대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sup>30)</sup> 그리고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실시 과정에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향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동해야 하고, 지휘관은 항상 목표 달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불필요한 교전은 회피하며 부대를 지휘를 해야 한다.<sup>31)</sup> 다음으로 작전수행과정은 작전을 수행하는 일련의 순서적인 과정으로서 계획수립, 작전준비, 작전실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작전수행과정은 작전요소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이다.<sup>32)</sup> 그러므로 각 작전수행과정별로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을 분석하는 것은 킨 특수임무부대가 왜 작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 가. 임무와 피·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했던 부대 편성

계획수립은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작전계획을 만들어서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임무분석부터 시작하여 방책을 수립, 분석,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완성 단계로 진행된다.<sup>33)</sup> 계획수립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고려요소를 반영한 작전 계획에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30) Department of the Army, FM 7-40 1950: Infantry Regimen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p. 219-220.

31) Ibid., p. 228.

32) 육군본부, 『야전교범 기준-3-1 전술』 (계룡: 육군본부, 2017), p. 58.

33) Ibid., pp. 58-59.

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 수행의 주체인 부대를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부대 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부대 편성은 미 8군에서 역습 작전을 위해 하달한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sup>34)</sup>에 나와 있다. 작전명령 제8호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임무, 예하 부대 과업, 북한군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록을 통해 화력지원 관계 등을 명시하였다.

특수임무부대의 구성은 임무, 지형, 아군 상황, 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 보병사단 교범에 나와 있다.<sup>35)</sup>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요소들 중 지형을 제외한 임무, 아군 상황, 적 상황을 중심으로 부대 편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시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을 수행한 지형은 부대별로 크게 상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형이라는 요소는 부대 편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대별 편성을 정리할 때에는 전차, 포병, 항공 부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위 부대들은 강력한 화력지원수단으로서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병과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 지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4)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96.

35) Department of the Army, FM 7-100 1958: Infantry Divis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8) p. 43.

&lt;표 1&gt; 미 제25보병사단 사령부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 고
직할부대	제25사단 본부 · 수색 · 보충 · 통신 · 헌병 · 보수 중대, 의무대대(-), 제65전투공병대대(-)	-
포병부대	제25사단 제90야전포병대대(-) (155mm 곡사포)	사단 일반 지원, 제555야전포병대대 화력지원
전차부대	제89중전차대대	사단 일반지원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임무 측면에서 각 연대는 모두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 제25사단 포병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4개의 포병대대 중 3개 포병대대를 예하 연대에 배속해준 것은 적절했다. 정확한 포 사격을 위한 포병의 측지(artillery survey)<sup>36)</sup> 정보를 제공해주는 본부가 진동리 일대에만 설치되고 진동리 일대에 있는 부대에만 측지 정보가 제공되었다.<sup>37)</sup> 따라서 각 연대의 포병대대는 자체적으로 측지를 통한 포 사격을 했고, 이로 인해 포병대대들의 협조된 사격이 필요할 때에 오차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제89중전차대대를 사단 일반지원으로 활용한 것은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 실패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작전에서 제89중전차대대의 임무는 전방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후방지역에서 침투한 북한군을 격퇴하여 보급로를 지키는 것이었다. 당시

36) 포병의 측지란 사격 요도 상에 기표하고 각 포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와 표적을 상대적 수평 및 수직 위치를 충분한 정확도로써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군사용어사전, “포병의 측지,”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2. 6. 14).

37)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107.

미군 전차들은 T-34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과 신속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전방 지역에서 전차들이 활용되었다면 작전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차들은 후방지역에서 통상 소대 단위로 보병을 지원했으며, 종종 화력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다. 제89중전차대대 A중대는 주로 미 제35연대를 지원하였으며, B중대는 미 제24연대를 지원하여 2일간 함안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이후 D중대와 교대되었다. C중대는 주로 마산을 보호하며 주보급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sup>38)</sup>

방호 측면에서 사단 사령부와 포병대대를 방어해줄 부대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전방에 병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사단 사령부 일대는 작전이 진행될 때 지속해서 북한군의 침투 위협을 받았다. 추후에 민부대가 마산 일대에서 사단 사령부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지속적인 북한군의 위협은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표 2> 미 제24보병연대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 고
직할부대	제1·2·3 대대, 한국군 중대위·홍 소령 대대 <sup>39)</sup> ·김성은 부대 <sup>40)</sup> , 제77전투공병 중대, 제25사단 제25의무대대 파견대, 제25통신중대 파견대	-
포병부대	제25사단 제159야전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전차부대	-	-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 38) 육군기계화학교, 『6·25전쟁 시 기갑부대운용』 (계룡: 육군본부, 2009), p. 46.  
 39) 작전명령 제8호에는 한국군 중대위 대대(Capt CHUNG's Bn, KA), 한국군 홍소령 대대(Maj HONG's Bn, KA)로 명시되어있다. 이들은 8월 7일에 부여된 중암리-함안-진동리 일대 도로 확보 임무를 마치고 마산에 있는 민부대로 합류하여 마산 방어를 담당했다.  
 40) 8월 6일 하달된 작전명령 제8호에는 미 제5연대전투단에 배속되어 있었으나, 8월 7일에 미 제24연대로 배속되어 마산 일대에서 미 제24연대와 같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미 제24연대 예하 부대로 명시했다.

미 제24연대는 8월 7일에 하달된 작전 지시<sup>41)</sup>에 의해 마산 서쪽에서 함안, 진동리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한 뒤 중암리-진동면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는 미 제35연대와 미 제5연대전투단 사이에 있는 서북산 일대를 확보하고, 침투하는 적으로부터 후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작전에는 한국군 중대위 대대가 지원한 미 제24연대 3대대와 홍소령 대대가 지원한 미 제24연대 1, 2대대가 같이 임무를 수행했으며, 마산 지역에서는 김성은 부대와 민부대도 함께 임무에 참여했다. 미 제25사단 헌병 중대가 통제하는 한국군 경찰 중대도 후보급로와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는데<sup>42)</sup>, 후방 지역 작전에는 주로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

중국군의 기록에는 북한군 제6사단이 미 제25사단을 궤멸시키고, 8월 7일에는 마산에 진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sup>43)</sup> 마산 지역까지 침투한 북한군의 위협은 상당했다. 미 제24연대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많은 한국군 부대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후방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실패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안정한 후방지역의 상황으로 인해 공격을 진행하려고 이동하던 부대들이 침투한 북한군에 의해 지속해서 피해를 보았고, 이는 공격 부대들의 진출을 지연

41)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p. 33.

4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p. 18.

4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抗美援朝戰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서울: 국방부, 2002), p. 125.

시켰다. 진동리의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공격을 진행하기로 계획한 미 제1해병여단과 미 제5연대전투단은 진동리 교차로 일대의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8월 7일 공격 개시 후 8월 9일까지 진동리 일대에서 진출하지 못했다. 또한, 공격을 진행하는 부대의 일부 병력을 후방으로 전환할 계획을 고려했어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후방지역은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에 지속해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 제24연대는 8월 6일 밤 주요 지역에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진동리 주변의 강제 고지를 장악하여 이 지역을 소탕해야 했지만, 북한군의 공격 때문에 함안까지 철수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미 제24연대장이 화이트(Horton V. White) 대령에서 챔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으로 교체되었다.<sup>44)</sup> 이처럼 미 제24연대는 후방지역에 침투한 다수의 북한군과 그들의 강한 전투력, 그리고 서북산을 포함한 험준한 고지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후방지역의 안정은 확보되지 않았다.<sup>45)</sup>

---

44) 윤창일 (2014), p. 675.

45) Ibid., p. 677.

## &lt;표 3&gt; 미 제35보병연대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고
직할부대	제 1 · 2 · 3 대대, 한국군 독립중대, 제25사단 제25의무대대, 제65전투공병대대, 제25통신중대 파견대	-
포병부대	제25사단 제64야전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90야전포병대대 C포대(15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전차부대	제25사단 제79전차대대 A중대 <sup>46)</sup>	-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미 제35연대가 부여받은 임무는 작전지역 내 북쪽에 있는 남해안 도로 일대를 확보하며 진주 방향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무촌리에서 미 제5연대와 합류하여 협동으로 진주 고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sup>47)</sup> 진주 일대는 북한군 제6사단이 전개되어 있었고, 북한군 제6사단 북쪽에는 북한군 제4사단이 있었다. 작전명령 8호의 정보 부록에서는 미 제25사단이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 제4사단이 빠르게 미 제25사단 방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해진 계획대로 작전을 진행하면 북한군 제4사단은 아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sup>48)</sup>

그래서 미 제25사단은 북한군 제4사단과 가장 근접해있는 미

46) 원래 일본에 주둔하던 미 제25사단은 전차대대가 편제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감소 편성되어 M-24 경전차 1개 중대(14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전차 1개 중대는 전투 중 대부분이 격파되어 후에 제89중전차대대로 배속되었다. 육군기계화학교 (2009), pp. 43-45.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48)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102.

제35보병연대에 혹시 모를 교전 가능성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 제35보병연대에 강력한 전투력과 화력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사단에 편성된 1개 전차 중대, 155mm 곡사포 1개 포대, 방공포병 1개 소대를 지원해주고, 사단을 일반지원하는 미 제89중전차대대 A중대도 35연대를 주로 지원하였다.<sup>49)</sup>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이 진행될 때 북한군 제4사단은 북한군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산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또한, 미 제35연대가 상대한 적의 저항은 예상보다 미비했고, 그로 인해 미 제35연대는 공격을 계획한 연대 중 유일하게 계획대로 최초 목표에 도달했다.

미 제35연대가 상대해야할 적에 비해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전투력은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실패에 영향을 끼쳤다. 한쪽 부대에 집중된 전투력은 다른 부대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미 제35연대에 전투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격을 진행했던 미 제5연대 전투단은 포병대대(-) 규모의 155밀리 화력 증원 외에는 추가적인 부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8월 10일 미 제5연대전투단이 봉암리 계곡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보았다. 북한군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미 제5연대전투단의 보병대대와 포병대대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105밀리 곡사포와 155밀리 곡사포도 많은 수가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미 제5연대전투단의 무촌리 진출은 지연되었다. 결국,

49)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 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ook 9, Aug. 1950 : Annex #13, QM Co.; Annex #14, 25th Repl. Co.; Annex #15, 25th MP Co.; Annex #16, Co. A 79th TK Bn.;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정리번호 No. 040132186, p. 90.

무촌리 일대에서 계획했던 미 제5연대전투단과 미 제35연대의 협동공격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킨 특수임무 부대는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표 4> 미 제5보병연대전투단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고
직할부대	제 1 · 2 · 3 대대, 제72전투공병중대, 제5연대 의무중대	
포병부대	제555야전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제90야전포병대대(-) (155mm 곡사포) 화력 증원
전차부대	제5연대 전차중대 <sup>50)</sup> (M-26 퍼싱)	-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미 제5연대전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작전지역 내 중앙에 있는 진동리-봉암리-무촌리 도로를 따라 공격을 진행하고, 무촌리에서 미 제35연대와 협동으로 진주 고개를 공격하여 진주에서 남강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sup>51)</sup> 미 제5연대전투단은 1개 전차 중대와 1개 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단 제90야전포병대대(-)로부터 화력 증원을 받았다. 무촌리에서 미 제5연대전투단과 합류한 후에 진주 고개를 협동으로 공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충분히 단독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0) 5연대전투단은 8072전차중대 M-26 퍼싱 전차 14대와 작전을 수행했다.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간 미군은 제89중전차대대, 해병 제1차전차대대, 5연대전투단 전차중대를 포함하여 총 전차 101대를 투입하였다. 육군기계화학교 (2009), pp. 49-53.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 제5연대 전투단은 봉암리 일대에서 예상하지 못한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무촌리 진출이 지연되었다. 또한, 미 제5연대 전투단은 봉암리로 이동하기 전인 진동리에서도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과의 전투로 인해 최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공격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미 제5연대전투단의 공격이 적의 저항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에 영향을 끼쳤다.

<표 5> 미 제1해병여단 편성<sup>52)</sup>

구분	소속 부대	비고
직할부대	제 1 · 2 · 3 대대,	대대별 2개의 소총중대
포병부대	제1해병사단 제11해병포병 1대대 (15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전차부대	제1해병사단 제1전차대대 (M-26 퍼싱)	-
항공부대	제33해병항공단(MAG-33)	근접항공지원 실시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미 제1해병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작전지역 내 남쪽에 있는 진동리-고성-사천 도로를 따라 공격을 진행하여 사천과 사천에서 진주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sup>53)</sup>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8군의 예비로서 자체적으로 강력한 전투력과 작전지속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미 제1해병여단은 상륙케도차량중

52) 해병대사령부, 『한국전쟁에서의 미 해병대(US Marines in the Korean War)』 (계룡:해군본부, 2019), p. 9.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대, 상륙차량소대, 수색중대, 헌병중대가 편성되어 있었고, 미 제1해병사단 통신대대, 차량수송대대, 의무대대, 해안대대, 공병대대, 병기대대에서 파견된 중대급 전투지원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적극적인 작전지속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미 제1해병여단은 작전 기간 내내 원활한 작전지속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33해병항공단(Marine Aviation Training Support Group 33)의 지원을 받았다.<sup>54)</sup> 미 제33해병항공단은 미 제323해병전투공격비행대(VMFA-323)와 미 제214해병전투공격비행대(VMFA-214)의 커세어 전투기(F4U Corsair), 미 제502해병전투공격훈련비행대(VMFAT-502)의 야간 공격용 커세어 전투기와 그루먼 F7F 타이거캣 전투기(Grumman F7F Tigercat), 그리고 미 제6해병관측대대의 OY-2 관측기(OY-2 observation aircraft) 8대, 시코르스키 H-5 헬기(HO3S1 helicopter) 4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항공모함 USS 바동 해협호(USS Badoeng Strait, CVE-116)와 부산 서부 K-1 항공 기지(Pusan West (K-1) Air Base)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력한 근접항공지원과 근접정찰을 통해 미 제1해병여단의 원활한 작전 수행에 기여했다. 특히, 시코르스키 H-5 헬리콥터는 미 제1해병여단장 크레이그(Edward A. Craig) 준장이 전방 정찰 및 명령 하달,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자주 활용했으며, 헬리콥터의 기동성 덕분에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부대를 통제할 수 있었다.<sup>55)</sup> 미 제1해병여단은 강력한 항공화력 외에도 M-26 퍼싱 전차로 구성된 전차대대와 155mm 곡사포로 구성된 포병대대를

54) Ibid., p. 686.

55) 해병대사령부 (2019), p. 34.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지원 하에 작전 수행이 가능했다.

### 나.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부족했던 임무수행준비 및 예행연습 시간

작전준비는 지휘관 및 지휘자, 지휘통제본부가 수립된 작전계획을 기초로 작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으로서, 이는 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sup>56)</sup> 작전준비 단계에서는 임무수행준비 지도 및 감독, 예행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는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조된 작전이었고,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예하 부대에게 충분한 작전준비 시간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우선 8월 6일 6시부로 하달된 작전명령 8호는 예하 부대가 작전을 준비할 충분한 여건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1950년에 발간된 미 보병연대 교범에 따르면 공격 작전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예하 부대가 정찰하거나 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명령이나 단편 명령 등을 하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sup>57)</sup> 하지만 미 제 25사단은 공격 개시 하루 전에야 작전명령 8호를 예하 연대에 하달했고, 따라서 연대들은 대대에 명령을 하달하고 공격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미 제29연대 1대대는 8월 6일에 명령이 하달된 후에 미 제35연대에 합류하여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 더욱 부족했다.<sup>58)</sup>

56) 육군본부 (2017), p. 59.

57)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 119.

58)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또한, 상급부대는 예하 부대의 작전 준비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사전 이동 계획을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정확하게 하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하 부대는 상급부대에서 하달한 계획을 토대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제8군은 공격 개시 전 부대 전개에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준비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시간대별 지시사항을 정리하여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미 제5연대와 미 제1해병여단에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했다.<sup>59)</sup>

<표 6> 시간대별 지시사항

날짜	시간	지시사항
50년 8월 6일	08:00-12:00	· 미 제1해병여단은 차량을 이용해서 진동리로 이동하라. · 미 제27연대 1대대를 배속 해제하라. · 미 제555야전포병대대는 해병여단 대열을 따라서 진동리까지 이동하라.
	17:00-19:00	· 미 제27연대 1대대는 해병여단의 트럭을 이용하여 마산으로 이동하고, 도착한 뒤에는 트럭을 다시 해병여단으로 반납하라.
	20:00-22:00	· 미 제5연대 3대대는 진동리로 이동하고, 미 제27연대 2대대를 배속 해제하라.
	20:00-24:00	· 미 제5연대 전투단 잔류 부대들은 진동리로 이동하라.
	24:00-04:00	· 미 제27연대 잔류 부대들은 기동화된 미 제5연대 전투단의 잔류 병력들이 가지고 있는 트럭을 이용하여 마산으로 이동하라.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Historical Report; Narrative Report.',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49, p. 16.

59)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95.

날짜	시간	지시사항
50년 8월 7일	03:00	· 미 제1해병여단 잔류 부대들은 진동리로 이동하라.
	07:00	· 미 제5연대전투단, 미 제24연대전투단, 그리고 미 제35연대 전투단은 공격을 개시하라.
50년 8월 7일	추가사항 1	· 미 제1해병여단 미 제5연대전투단이 진동리 일대를 확보한 뒤에 공격을 개시하라.
	추가사항 2	· 미 제1해병여단의 공격 개시 시간은 미 제1해병여단장이 결정하라.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109.

하지만 실제 진행은 위 <표 6>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 제1해병여단은 8월 6일 12시까지 진동리로 이동한 후 미 제5연대전투단이 진동리 일대를 확보한 뒤 공격을 개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진동리 일대 고지에 사전에 침투한 북한군으로 인해 미 제5연대전투단의 진동리 확보가 늦어지자 결국 하달된 계획과 달리 미 제1해병여단 1개 대대가 8월 7일 오전 진동리 일대에서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결국, 기존 계획과 달리 미 제1해병여단은 8월 7일 3시 전까지 진동리 일대로 이동할 수 없었고, 북한군의 공격으로 진동리 일대에서 작전 진행이 지연되었다. 어쩔 수 없이 미 제1해병여단은 진동리에서 차후 작전을 준비할 시간 없이 진동리를 확보한 이후 바로 고성 일대로 진출하게 되었다.

#### 4. 작전실시 과정 분석

##### 가.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인한 공격 기세 유지 실패

작전실시는 수립된 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기초로 작전을 시

행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상황판단, 결심, 대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황판단은 현행작전을 평가하여 어떠한 작전계획을 적용할 것인가와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결심은 지휘관이 작전을 실시할 때 상황판단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고, 대응은 지휘관이 결심한 대응 방안을 지휘통제본부가 시행하는 것이다.<sup>60)</sup> 킨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실시 단계에서 잘못된 상황판단과 결심으로 인해 공격 기세를 유지하지 못했고, 후방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지휘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은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8월 8일 미 제35연대는 최초 계획대로 무촌리 일대에 도착했고, 8월 9일 밤에 진주 방향으로 미 제5연대전투단과 협동공격을 개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sup>61)</sup> 하지만 미 제5연대전투단이 계획대로 무촌리까지 진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진주 고개에 대한 협동공격은 불가능했다. 미 제35연대는 미 제5연대전투단의 진출이 늦어졌지만, 미 제5연대전투단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단독으로 진주 고개를 향해 진출하지 않고 대기했다. 결국, 진주 고개의 확보가 계획보다 늦어짐으로써 북한군은 방어 태세를 강화했고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목표였던 진주 점령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 제35연대가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무촌리에서 미 제5연대전투단을 기다리는 동안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35연대 1개 대대를 함안 북쪽의 교차로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sup>62)</sup>

60) 육군본부 (2017), pp. 60-61.

61)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p. 28.

이는 함안 일대에서 주보급로를 방어하던 미 제24연대 병력들이 진동리 일대의 북한군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진동리로 전환됨에 따라 함안 일대의 방어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북한군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미 제35연대가 신속하게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미군의 빠른 공격 속도로 인해 북한군은 포병 진지를 점령할 시간이 부족했고, 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병력 배치 또한 제한되었다.<sup>63)</sup>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35연대가 단독으로 진주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 제35연대는 북한군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 판단이 제한되었다. 또한 당시 후방 지역의 상황이 침투한 북한군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35연대를 무촌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정기 작전 보고서 78호에 따르면 미 제35연대가 진주 고개를 점령할 때 적의 저항은 경미했다.<sup>64)</sup> 정기 정보 보고서 27호에 따르면 항공 정찰을 통해 진주 일대로 많은 북한군 병력과 차량의 이동이 식별되고 있었기 때문에<sup>65)</sup> 미 제35연대는 진주 고개

6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p. 87.

63) 25th Infantry Division Associat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Tropic Lightning, Korea, 1950-1954* (TN: Turner Publishing Company, 2002), p. 28.

64)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p. 147.

65) Ibid., p. 140.

일대의 적의 저항이 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후방지역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고<sup>66)</sup>, 종종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방의 북한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 북한군 배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 제35연대는 미 제5연대전투단이 합류하지 않아도 진주 고개 점령이 가능했었고, 결국 미 제35연대는 북한군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황 판단이 미흡했기 때문에 무촌리에서 3일간 대기를 하면서 전투력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투력의 낭비는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 나. 불안정한 후방지역 상황으로 인한 잘못된 결심

공격 개시 이전부터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으로 인해 후방지역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그로 인해 물자 보급 및 병력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연습 작전 진행을 지연시켰다. 또한 킨 특수임무부대가 기존의 계획대로 진출하지 못하면서 북한군은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미 제25사단장은 후방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활용되어야 할 병력을 후방으로 전환하는 등의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공격 진행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실패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 제8군은 6일에 하달한 작전명령 8호를 통해 킨 특수임무부대의 모든 부대는 아군 지역에 침투한 게릴라 부대를 식별하고

66) 정기 작전 보고서 79호에 따르면 미 제79전차대대 A중대는 미 제24연대 1개 소대와 같이 미 제35연대의 후방 주보급로를 사수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Ibid., p. 149.

격멸하기 위해 지속해서 공격적인 순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sup>67)</sup> 공격 개시 이전에 이미 작전지역 내에 다수의 북한군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을 격퇴하고 공격을 개시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부대는 자체적으로 공격적인 순찰을 통해 게릴라 부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미 제25사단장은 후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 제24연대와 한국군 부대를 후방지역작전에 활용했으나, 북한군의 위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8월 6일에 해결되지 않은 북한군의 후방 위협은 이후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지속되었으며, 주 보급로와 마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미 제89중전차대대의 전차 중대들이 공격을 진행하는 전방이 아닌 후방지원 위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sup>68)</sup>

공격을 개시한 뒤에도 후방지역은 지속해서 불안정했다. 8월 7일 미 제5연대전투단 2대대는 진동리 교차로 북서쪽의 여우 고지(Fox Hill)를 미 제1해병여단 2대대에 인계하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8월 7일 아침부터 고지 주변에 침투해 있던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sup>69)</sup> 또한, 진동리 북서쪽의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미군 보급소와 포병 진지에 박격포 사격을 하면서 진동리-마산 간 도로도 차단하였다.<sup>70)</sup> 이 문제를 해결하기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1해병여단장에게 진동리 지역 작전 통제권을 부여하였고,<sup>71)</sup> 이로 인해 미 제1해병여단의 공격 진행은

67)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94.

68) 육군기계화학교 (2009), p. 54.

69) Appleman (1992), p. 272.

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1.

71) Appleman (1992), p. 272.

더욱 지연되었다.

미 제25사단장은 전방에서 정보 수집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사단 수색 중대와 강력한 화력 자산인 전차 1개 중대를 후방지역에서 활용하였다. 미 제25사단장은 사단 수색 중대를 파견하여 미 제5연대전투단과 미 제1해병여단이 마산에서 진동리에 이르는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부여했다.<sup>72)</sup> 또한 진동리 일대의 혼선으로 인해 중앙과 남부 축선의 공격이 지연되자 북쪽 축선에서의 공격 또한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마산에서 중암리에 이르는 도로 일대에 제79전차대대 A중대를 파견하여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sup>73)</sup> 미 제25사단장은 후보급로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미 제24연대 1대대에게 봉암리 일대에서 북한군에게 포위당한 미 제5연대전투단 2대대를 구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sup>74)</sup> 하지만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미 제24연대 1대대는 미 제5연대전투단 2대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지도 못했으며, 후보급로를 방어하던 병력이 이동함으로써 후방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공군 화력지원을 요청했으나, 잘못된 화력 유도로 인해 오히려 아군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8일 19시 30분 미 제24연대 3대대는 후방에 침투한 북한군에게 F-51의 기총소사 화력지원을 요청했으나, 화력 유도가 잘못되어 아군 진지에 F-51이 기총소사를 퍼부어 아군

7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p. 31.

73) Ibid., p. 32.

74) Ibid., p. 28.

병력이 진지에서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sup>75)</sup> 이는 적군과 아군이 혼재된 후방지역에서의 화력 지원 요청은 항상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 다. 지휘관의 지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

미 제24연대는 연대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지휘책임을 지고 연대장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 개시 초기에 미 제24연대는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여 아군의 보급로를 위협하는 북한군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북한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보았다. 함안 서쪽에 있던 미 제24연대 L중대가 북한군의 매복 공격에 당했고, 미 제24연대 I중대는 와해되었다.<sup>76)</sup> 그 결과 2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미 제24연대 3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함안 일대로 후퇴했다. 결국, 공격 개시 하루 전일 6일에도 서북산 일대는 북한군 제6사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해 미 제24연대장이 챔페니(Arthur S. Champney) 대령으로 교체되었다. 공격 개시 전일 연대장의 교체는 연대 예하 병력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sup>77)</sup>

8월 7일 미 제5연대전투단 1대대는 미 제1해병여단의 진출을 엄호하기 위해 진동리 일대를 관측하기에 쉬운 교차로 북서쪽의 언덕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미 제5연대전투단 1대대는 갈림길에서 방향을 잘못 들어 미 제1해병여단이 진출하기로 한 고성 방향으로 약 3.6km 정도 이동했다.<sup>78)</sup> 미 제5연대

75) Ibid., p. 86.

76) Appleman (1992), p. 270.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78) 온창일 (2014), p. 675.

전투단 1대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기존에 1대대가 점령하고자 했던 고지는 북한군이 점령하였다. 진동리 일대를 관측하기에 용이한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 때문에 아군의 주 보급로와 보급소는 북한군의 화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8월 12일 킨 특수임무부대 예하 포병부대는 미 제25사단장과 제5연대장의 잘못된 지시와 대응으로 인해 봉암리 계곡에서 많은 손해를 입었다. 당시 포병부대원들은 봉암리 계곡을 '피의 계곡 또는 포병의 무덤'이라고 부를만큼 봉암리 계곡에서 많은 사상자와 장비 피해를 입었다. 미 제555포병대대는 사상자 180명과 105mm포 8문, 미 제90포병대대는 사상자 190명과 155mm포 6문, 차량 26대의 피해를 보았다.<sup>79)</sup>

위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8월 10일 미 제5연대전투단이 봉암리 계곡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 때문에 진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 제5연대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것이 원인이었다. 미 제5연대장은 봉암리 계곡을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1일 야간에 이동하는 것을 11일 오후에 사단에 건의했고 미 제25사단장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8군의 명령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미 제5연대전투단이 진출하기를 원했고, 11일 21시에 “제2대대와 1개 포대를 즉시 고갯길을 따라 이동시키고, 나머지 부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리를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미 제5연대장은 이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봉암리에서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단 본부에 연락하려 했으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5연대장은 사단장의 명령이 상급 지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 297-298.

휘관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미 제5연대장은 미 제25사단장의 명령을 이행했다.<sup>80)</sup> 그 결과 봉암리 북서쪽의 발산고개에 미 제1대대, 봉암리 일대에는 미 제5연대본부, 미 제555포병대대, 미 제90포병대대, 미 제159포병대대, 미 중박격포, 미 근무중대와 의무중대만 남게 되었다.<sup>81)</sup> 즉, 자체 방어 능력이 부족한 3개 포대와 1개 보병대대만이 봉암리 계곡에 남게 된 것이다.

미 제25사단장이 미 제5연대전투단에게 1개 대대와 1개 포대만 이동하고 나머지 병력은 봉암리 일대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잘못된 명령을 하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 제25사단장은 봉암리 일대에 적이 많다는 미 제5연대장의 말을 믿지 않았고,<sup>82)</sup> 진주 고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1개 대대와 1개 포대 정도만 미 제35연대에게 지원해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봉암리에 남은 병력들은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새롭게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방으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괜찮고, 미 제24연대 3대대를 미 제5연대전투단의 우측을 방어하도록 보냈기 때문에<sup>83)</sup> 봉암리 일대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 제5연대장은 현장 지휘관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단장에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또한 미 제5연대장은 변화하는 상

80) Appleman (1992), p. 279.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6.

82) Appleman (1992), p. 279.

83)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군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p. 147.

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부대를 지휘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봉암리 일대의 적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찰을 통해 주변 고지를 확인하거나, 다수의 포병대대에 대한 방호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부르게 봉암리 일대로 진입하는 것을 미리 통제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미 제5연대장은 적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상급 지휘관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선시했다. 그로 인해 미 제5연대전투단 잔류 병력들은 봉암리 일대에서 위협에 노출된 채로 대기하게 된 것이다.

상급 지휘관들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예하 지휘자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미 제5연대전투단이 봉암리에서 북한군에게 포위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그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든 것은 봉암리 북쪽에서 출현한 북한군 전차였다. 이는 봉암리의 북쪽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미 제5연대전투단 1대대 A중대 1개 소대와 전차반이 임의로 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전차는 아군에게 탐지되지 않고 아군의 포병부대 근거리로 접근할 수 있었고, 결국 포병대대에 큰 피해를 줬다.<sup>84)</sup> 이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철수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못된 소대장의 대응이 아군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다.

---

84) Appleman (1992), p. 282.

##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50년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킨 특수임무부대 역습 작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전은 지금까지 작전의 간략한 경과와 작전의 결과 때문에 얻은 작은 성과에 대해서만 다뤄져 왔다. 작전의 성과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한 사례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주는 교훈을 작전수행과정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작전 준비, 그리고 작전 실시 단계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은 단순히 많은 전투력을 할당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었다. 하나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의 연대가 잠정적으로 한 부대에 편성되어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부대 편성부터 치밀한 고려가 필요했다.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된 시기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전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북한의 공세 또한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킨 특수임무부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대를 편성할 수 없었다. 또한,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새롭게 편성된 부대 사이의 예행연습 등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방지역의 안정

이 확보되지 않아서 침투한 북한군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공격 부대의 진출을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킨 특수임무부대는 공격 기세를 유지하지 못했고, 일부 지휘관의 지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들로 인해 결국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도 항상 작전에 성공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목적 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특수임무부대가 상대할 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할 적의 전투력이나 배치 등이 미리 파악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수집된 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은 예하 부대에 각각 어느 정도의 병력과 화력 자산 등을 분배할지를 결정한다. 상대할 적에 비해 과도하게 전투력이 집중된 부대는 전투력이 낭비될 위험이 있고, 타 부대의 전투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상대할 적에 비해 전투력이 부족한 부대는 특수임무부대가 계획한 작전 템포<sup>85)</sup>에 맞춰 작전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작전 목적 달성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특수임무부대로 새롭게 편성된 부대가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전 준비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수임무부대로 편성된 부대들은 평상시에 같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지휘 통제가 어렵고 따라서 당연히 협조된 작전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수임무부

85) 템포(Tempo)는 적에 대한 상대적인 작전의 속도이며 리듬이다. 템포는 주도권 장악의 필수 요소로 상대성, 적시성, 지속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합동군사대학교 (2021), p. 348.

대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와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잠정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작전을 준비할 때 더욱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킨 특수임무부대와 같이 급조된 특수임무부대는 당연히 작전 준비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상급부대는 사전 준비 명령 하달, 충분한 이동 자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예하부대의 작전 준비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목표를 향해 이동해야 한다. 임무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교전을 회피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특수임무부대와 강화된 공격 부대의 차이점이기 때문이다.<sup>86)</sup> 따라서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적과의 교전이나 다른 행위들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특수임무부대는 후방지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방지역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후방지역에 침투한 적에 의해 전방 부대에 대한 보급과 지휘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임무부대의 신속한 작전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후방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에 있는 부대가 후방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공격 기세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임무부대는 기존에 해당 작전지역에 있던 부대에 후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작전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부대를 후방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후방지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은 임무 달성을 최우선시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은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습의 기회를

86)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 228.

연게 되더라도 그것이 임무 달성과 관련이 없다면 적을 기습하지 말고 신속하게 임무를 향해 이동해야 한다.<sup>87)</sup> 따라서 지휘관은 임무 달성을 위해 상황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고, 상급 부대와와의 교신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도 주어진 임무를 고려하여 부대를 적절하게 지휘해야 한다.

우리 군은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실제로 작전을 수행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차후에 한반도나 다른 전장에서 편성될 수 있는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성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

87)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 228.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Historical Report; Narrative Report,’,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49.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_\_\_\_\_, ‘Twenty 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ook 9, Aug. 1950 : Annex #13, QM Co.; Annex #14, 25th Repl. Co.; Annex #15, 25th MP Co.; Annex #16, Co. A 79th TK Bn.;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86.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k. 9, Aug. 1950 : War Diaries-Unit Rpts. Aug. 1950,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82.

Department of the Army, FM 7-40 1950: Infantry Regimen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0).

\_\_\_\_\_, FM 7-100 1958: Infantry Divis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8)

## 2. 공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 3. 단행본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처, 2021.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경기: 지문당, 2011.

<http://uci.or.kr//G701:B-00114472288@N2M>

육군기계화학교, 『6·25전쟁 시 기갑부대운용』, 계룡: 육군본부, 2009.

육군본부, 『야전교범 기준-3-1 전술』, 계룡: 육군본부, 2017.

해병대사령부, 『한국전쟁에서의 미 해병대(U.S. Marines in the Korean War)』, 계룡: 해군본부, 201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抗美援朝戰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서울: 국방부, 2002.

<http://uci.or.kr//G901:A-0006044432@N2M>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25th Infantry Division Associat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Tropic Lightning, Korea, 1950-1954 (TN: Turner Publishing Company, 2002).

#### 4. 논 문

MAJ Kyle D. McElveen, “Blueprinting Success: The Tropic Lightning in Korea, June to October 1950”,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May 2019).

#### 5. 기 타

군사용어사전, “포병의 측지,” <https://terms.naver.com> (접속날짜: 2022년 6월 14일).

(Abstract)

## A Study on the Counterattack Operation of Task Force Kean, which defended the Nakdo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Kang, Ji-hyeon

This study analyzes the counterattack operation of the Task Force Kean, which was conducted from August 5 to August 13 during the Nakdong River defense operation in 1950. The operation of the Task Force Kean is of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division-level counterattack operation in the delayed operation that continu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However, despite its strong combat capability of up to 23,000 people, it failed to achieve its goal in counterattack operations against about 7,500 North Korean troops.

Existing studies briefly deal with the progress of the operation, and focus only on some of the achievements obtained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earance of the unit formation, operation preparation process, and operation implementation process to analyze the lessons of the Task Force Kean operation. To this end, regular operational reports, war journals, and command reports of the 25th U.S. Infantry Division during the Korean War will be used intensively.

Task Force Kean had strong combat capabilities, but due to the fierce front situation, each unit was formed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enemies and operational terrain, and lacked time to prepare for operations such as rehearsal and preliminary reconnaissance. The stability of the rear area was not guaranteed because the North Korean military's threat that penetrated during the operation was not removed, and as a result, the advance of the offensive unit was delayed and the offensive momentum was not maintained.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command capabilities of some commanders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the operation of Task Force Kean

eventually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Keywords : Task Force Kean, Counterattack Operations,  
U.S. 25th Infantry Division, U.S. 1st Marine Brigade,  
U.S. 5th Regiment Combat Team